
2022 vol.97 겨울호

영중소식

Yeongdeungpo JoongAng Magazine



ycmc.church

2022 겨울호 CONTENTS

Merry
Christmas



발행처 영등포중앙교회
072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63
TEL. 02)2631-5721~2 FAX. 02)2631-5725
발행인 최태수
편집인 조영주 신승민
편집위원 김성일 최웅기 김선정 김성희b 박선숙 권지선
발행일 2022. 12. 25



은혜의 강단

04 믿음으로 여는 문 **최태수 목사**

평신도 칼럼

08 인생 이모작 **양승자 권사**

선교지 소식

10 필리핀 선교 30년은 하나님의 은혜(恩惠)

심령부흥회 소감문

14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박윤희 집사**

궁금해요

16 기독교 이단 시리즈 / 신천지, 구원파

기도해주세요

18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기도



양육프로그램 소감문

- 20 성도의 삶 차인숙 권사
- 21 큐티 모임 박은주 집사
- 22 구약 이해 이은우 집사
- 23 옥중서신 이해 이지현c 집사
- 24 존 웨슬리와 감리교 교리 기남숙 권사
- 25 마더 와이즈 박현정 집사

추천합니다

- 26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성탄묵상

- 30 길은 광야와 어둠을 통해 이어지고

교회학교 소식

- 32 유치부
- 34 유년부
- 36 초등부
- 38 청소년부
- 40 젊은이교회

영증게시판

교우소식

믿음으로 여는 문



담임목사 최 태 수

- 감리교신학대학교 졸업
- South East Graduate Association for Theology 선교학석사
- 미국 United Theological Seminary 선교학박사
- 필리핀 선교사
- 남서울대학교 교수, 교목
- 해성교회 담임목사
- 강남지방 감리사
- 현영등포중앙교회 담임목사

¹수 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²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³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
 새 ⁴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
 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⁵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⁶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⁷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
 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⁸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
 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⁹중풍병자
 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¹⁰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
 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¹¹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
 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¹²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
 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막 2:1-12

수업 중 교실 안이 소란스럽자 반장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밖으로 나가!”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이 책을
 들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
 람은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
 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일을 해도 만족스럽기 마련입니
 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 우리의 삶
 에 만족감이 넘쳐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버나움에는 오랫동안 중풍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
 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
 받을 수 있다’ 생각하며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였
 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가버나움
 에 오셨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풍병 환
 자에겐 예수님만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희망
 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신을 예수님
 께로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중풍병 환자의
 부탁을 들은 친구들은 침상을 만들어 그를 눕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
 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들어갈 문
 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 다. 무슨 수를 써도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

친구들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을 뚫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이 막혀서 예수님께 갈 수 없다고 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가는 게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집의 멀쩡한 지붕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지붕이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 장비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붕을 뚫고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중풍병 환자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는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고, 몸 이곳저곳에 욕창이 생겨 냄새가 나는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치유해 줄 사람도, 약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중풍병 환자와 친구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께로 갈 수 없게 되자 중풍병 환자는 자신을 막고 있는 현실의 벽 앞에서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제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또다시 외로운 골방에 혼자 있을 생각을 하니 온몸에 기운이 빠졌고 죽음의 그림자가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막힌 길이 죽음의 문처럼 보였고, 자신의 처지가 예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다

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중풍병 환자는 예수님께 매우 섬뜩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사방이 막혔고, 사람들이 너무 많았지만 중풍병 환자는 막힌 상황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막힌 길을 뒤로 한 채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소망의 문을 찾습니다. 그러자 지붕이라는 문이 보인 것입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지붕을 뚫고 자신을 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막힌 문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새로운 문을 만들자고 친구들을 설득합니다. 친구들은 중풍병 환자의 부탁을 듣고 지붕에 구멍을 뚫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모든 문이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중풍병 환자를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를 위해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

다. 그에게 자신에 대한 소문을 들려주었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품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어떠한 사람도 감히 상상하지 못할 방식, 지붕을 뜯고 내려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릴 때 예수님 주변에 소음과 먼지가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집의 문을 사람으로 막으시고 지붕의 문을 열어 주셨을까요?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인생의 모든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에게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까지 열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막힌 문을 모두 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여리고 성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고, 마지막 칠 일째에는 함성을 지르며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문을 열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러자 일곱 번째 날에 성은 무너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막힌 문을 모두 엽니다.

중풍병 환자가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기쁘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 상을 들고 걸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누운 채 예수님께 왔던 사람이 걸어 나갈 정도로 완전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걸어 나갈 때,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좌절과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건강의 문, 경제의 문, 관계의 문 등 모든 막힌 문이 열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도 열립니다. 주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는 육신의 문제를 넘어 영적인 문제도 해결 받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기쁨의 문뿐 아니라 구원의 문도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중풍병 환자처럼 모든 문이 막혀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이 막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딱 막힌 현실의 벽을 보면 저절로 한탄이 나옵니다. 끝내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

*사방의 막힌 문을 보지 말고,
나를 향해 항상 열려있는 하늘 문을 보십시오.*

”

하지만 인생의 모든 문이 막혀도 하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사방의 막힌 문을 보지 말고, 나를 향해 항상 열려있는 하늘 문을 보십시오. 언제까지 막힌 문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시겠습니까?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오십시오. **하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인생의 문이 막히면 새로운 문을 보십시오. 중풍병 환자와 친구들이 지붕을 뚫은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나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받아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열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우리가 열리지 않는 문 때문에 괴로워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빠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사방이 막혀 좌절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새로운 문을 보게 하시고, 그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실수와 나의 나약함, 나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서는 인생의 문을 닫아 놓으시고, 닫힌 문 때문에 낙심하게 하십니까? 예수님만이 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만이 모든 문을 열어 주실 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문을 닫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이 막혔을 때 새로운 문을 만들어서라도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신 분이십니다.

믿음은 모든 막힌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은 인생의 문이 막혔을 때 새로운 문을 만들어서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바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 주십니다. 치유의 문을 열어 죽지 않게 하시고, 막힌 경제의 문을 열어 새롭게 살게 하시며, 정신적 고통의 문을 열어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은 참 즐겁습니다.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믿음은 초인종입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열린 문도 닫혀 보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막힌 문을 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초인종을 눌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문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이모작



양 승 자 권사
(제5여선, 대우1속)

저는 2007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인생 60살이면 다 끝나는 건 줄 알았고 퇴직도 서둘러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80, 90대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거리에는 허리 꼳꽂하시고 두 무릎이 정정하신 분들이 수두룩 뺩뺩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 우리도 '인생 이모작'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모작(二毛作)이란 논에 벼만을 재배하는 단작이 아니고 벼와 그 전작이나 후작으로 다른 작물을 조합하여 논을 이용을 고도화하는 재배양식을 말하며, 그 같은 논을 이모작답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왕성한 경제, 양육 활동을 하던 전반기와 제2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후반기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 이모작'인 것입니다.

저도 요즘 인생 이모작에 관심이 많고 현재 인생 이모작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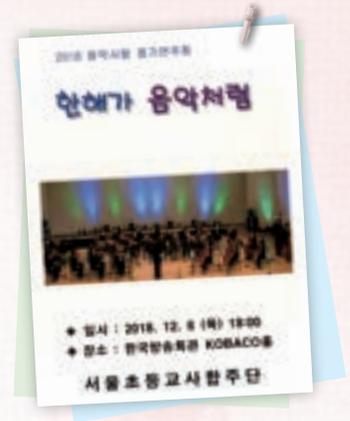
어떤 일인지 소개해 드리면, 저는 오케스트라에 가입하여 23년째 활동하고 있으며 클라리넷 앙상블 단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몇 년이나 하겠어?' 하고 시작한 것이 23년이나 지나갔습니다. 지휘자님은 현재 87세이신데도 90세까지 하시겠다고 장담하십니다. 우리가 뵈기로도 충분하시답니다.



“그러면 댕지 뭘 소리야?” 하고 핀잔하지 마십시오. 인생 이모작에 대해 함께 얘기해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농사일이 힘에 버겁습니다. 잘난 대원들을 따라가기가 힘이 듭니다. 진작 준비할

걸,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후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어서 힘든 이모작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인생 이모작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도 인생 이모작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저처럼 힘들고 버거운 농사일이 아니라 폼 나는 농사를 지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노력도 부족했고 쉽게 포기하고 잘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폼 나게 살다가 기도는 언제 하고 성경은 언제 읽어?” 하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저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필사도 한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인생 이모작을 찾아서 건강하게 살았고 잘했다고 응원해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이모작하실 분 손드세요! 50세부터 손드세요!
50세부터 준비해서 60세부터는 즐기시는 겁니다.
70세, 80세까지 팔팔하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50살부터 준비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빈 교실에서 1시간씩 연습하고 토요일은 문화센터 찾아다니고 월세 없이 바빴답니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시간이 가기 전에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시길 권면 드리며 이것으로 인생 이모작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나이 먹도록 건강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저기 다니며 연주 활동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작은 일들

존 헨리 조윗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작은 일들에 불을 밝혀주소서.

당신의 얼굴이 품고 있는 아름다움으로
그 작은 일들이 빛나게 하소서.

평범한 일과 속에 당신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는
진리를 믿게 하소서.



산타모니카교회 선교 30년사

필리핀 선교 30년은 하나님의 은혜(恩惠)

영등포 중앙교회 황규완 장로는 할아버지를 기념하여 만들어진 가족 선교회(황윤수 장로 기념 선교회)를 주축으로 30년간 필리핀 선교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동안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신 황규완 장로님께 필리핀 선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Q. 필리핀 선교의 동기와 계기가 궁금합니다.

한국교회는 1970년대 성령 운동의 결과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서면서 타 문화권 선교사역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한국교회 선교는 그 역량과 잠재력에 비하여 부족한 선교의 인적 자원과 노하우로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선교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교회 내 선교운동을 일으키고 효과적인 세계선교를 위해 ‘은암선교회’가 설립되었지요. 은암선교회는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중에서 제 아버지이신 황권식 장로는 충청연회 당진서지방 장로회 연합회장을 지내며 지방 목회자분들과 가까이 지내며 선교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평신도로 유일하게 은암선교회에 가입하신 동시에 선교회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필리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선교사역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Q. ‘황윤수 장로 기념선교회’에 관련하여 간략하게 소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의 할아버지이기도 하신 **故 황윤수 장로**께서는 삼봉감리교회*의 설립자로서 당진시 삼봉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일평생 헌신하셨습니다. 1938년 3월 4일, 할아버지 님의 사랑방을 임시처소로 정하고, 그 지역 최초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후 저의 아버지인 **故 황권식 장로**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정도로 전도와 섬김과 봉사로 교회를 부흥시켜 오늘날 삼봉감리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삼봉감리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 당진서지방 소속으로 지방과 연회에 분이 되고 있고, 현재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 담임목사인 김성선 목사께서 이번 충청연회 13대 감독으로 당선되기도 하셨습니다.

▼ 산타모니카교회 전경(1994)



▼ 경배와 찬양



▼ 말씀 선포





▲ 유치원 반별수업



▲ 초등학생과 교사들



▲ 교회청년들과 함께한 황규완 장로(가운데)

저의 아버지 황권식 장로를 비롯한 형제들은 이러한 복음을 향한 황윤수 장로의 헌신과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황윤수 장로 기념선교회’를 조직하여 하나님의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고, 자녀 세대들이 이러한 신앙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지도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열네 가정 모두가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6명의 목회자, 9명의 장로를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Q. 어느덧 필리핀 선교사역을 하신 지 30년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선교사역은 은암선교회와 현지에 파송된 정두해 선교사의 도움으로 필리핀 남부 ‘팔라완섬 (Palawan Island)’ 주도인 ‘프에토리코 프린사스 시(Puerto Princesa City)’에 황윤수 장로 기념교회를 세우자는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 여름에 땅을 구입하여 교회 건축을 시작하였고, 이듬해인 1994년 완공 봉헌을 하였습니다. 교회 이름은 지역사회의 이름을 따서 ‘산타모니카교회(Santa Monica Church)’라 지었습니다. 110여 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에게서 받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필리핀에 전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감사했습니다.

필리핀은 비행기로 4시간 안에 이동이 가능하고, 회교권과 달리 법적으로 선교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은 6.25 전쟁 참전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기에 도움을 준 유일한 아시아 국가입니다. 이러한 필리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0년간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며 선교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지원 내역

- 1993. 6. 6 산타모니카교회 기공(대지 2필지 230평)
- 1994. 10. 24 산타모니카교회 준공(6x12m=25평) 및 봉헌 예배
- 1997. 8. 20 ~ 9. 5 산타모니카교회 담임자 로저 목사, 한국 초청 영성훈련(14박 15일)
 ⇨ 방문지 : 정동제일교회, 감신대, 100주년 기념교회와 선교사 묘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철야예배, 명성교회 새벽예배, 회원들 교회에서 주일예배 설교, 경복궁과 민속촌 관람 등
- 1998. 6. 린다 감리사 한국초청 영성훈련(9박 10일) - <로저 목사와 동일하게>
- 1999. 6. 유치원 개원 - 초대 원장 : 레오노라 마케스(로저 목사 사모)
- 2002. 5. 유치원 교실 신축 공사(6x6m=10평)



- 2005. 1. 2 유치원 교실 준공 봉헌식(공사비 500만원)
- 2010. 1. 2 교회/예배당에 장의자(4인용 20개)기증 - 영등포중앙교회에서
- 2010. 1. 2 담임목사 오토바이 기증(200만원)
- 2012. 4 ~ 2019. 12 초등학교 개원 및 교실 5개 신축 완공하여 운영(1,800만원)
- 2015. 1. 2 초등학교에 컴퓨터 2대 기증(100만원)
- 2019. 12. 29 교회 증축 봉헌식 - 강대상 쪽에 7평 확대(공사비 600만원)
- 2019. 12. 30 교회에 빔 프로젝트 설치와 초등학교에 최초로 양변기 설치
- 2021. 4. 3 부활절에 황윤수 장로 기념선교회와 선교 지원 30년 마감 협약서 작성
- 2022. 4. 11 부활절에 30년 지원을 마감하며 교회에 신디사이저(60만원) 기증

더 나아가 저희는 선교비(1억 5천만 원)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2~3년 간격으로 선교지를 방문하였습니다. 3~4가정이 돌아가면서 선교지를 지속적으로 방문(10회에 걸쳐 64명 방문)하니, 필리핀에 있는 목회자와 교우,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쌓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Q. 30년을 기념하면서 산타모니카교회 지원을 마치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산타모니카교회가 잘 자립하였고, 건강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저희 회원들도 기쁘게 지원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리를 잡은 산타모니카교회를 보면서 지난 30년 동안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선교회원들 모두에게 주신 은혜임을 발견합니다. 황윤수 장로의 고귀한 신앙을 기념하며 계승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한 가문의 자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부족한 저희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동시에 돌아보면, 아쉬웠던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로는 선교지의 역사와 문화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선교 가운데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경험과 정보 없이 열정만 가지고 선교사역을 시작하다 보니, 그때마다 어렵고, 답답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일 당시에 요즘과 같이 국제전화와 인터넷이 잘 되었더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만일 제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현장에서 더욱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으시는 성도님께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이니, 선교의 자리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혹 마음에 와닿는 분이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선교의 자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영등포중앙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잘 인식하고 있는 교회이고, 여러 나라, 여러 교회에 최선을 다해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순례단 특송(2010)



▼ 예배 장면(2014)



▼ 컴퓨터 증정(2017)



* 다음은 필리핀 선교사로 수고하고 계신 정두해 선교사님께서 산타모니카교회 30년 선교사역을 마치시면서 쓰신 글입니다.

산타모니카 30년 선교사역을 회고하며

정 두 해 선교사

지난 30여 년 동안 ‘황윤수 장로 선교회’에서는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매월 수십만 원의 선교비를 한 달도 빠짐없이, 약 1억 5천여만 원을 성전 건축과 교회 운영비, 담임 목사 생활비, 유치원 운영비, 유치원 교사 월급 등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1991년도에 충남 당진시 소재 감리교회를 주축으로 결성된 은암선교회 목회자들이 팔라완을 방문하셨는데, 20여 명의 목회자들 중 연세 많으신 장로님 한 분(황권식 장로, 당시 선교팀 중 최고령자)이 제일 먼저 집합하시고, 매사에 솔선수범하셨습니다. 머지않아 가족을 구성원으로 한 선교회를 조직하시고 직접 선교지를 방문하셔서 교회 신축 기공과 준공을 추진해 주셨습니다. 몇 해 지나지 않아 황권식 장로님이 소천하시고 그분의 자손들이 황선교회 설립자이신 황권식 장로님의 뜻을 이어받아 선교사역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현재 영등포중앙감리교회의 황규완 장로님이 필리핀 선교회 회장을 맡아 오랫동안 선교회 회장으로 섬기시며 선교회를 발전시키시고 부설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설립하여 지원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므로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듯이, 오늘날 황윤수 장로 기념교회는 매주 100여 명이 예배하는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두 곳의 기도처를 오래전에 개척하여 지교회로 운영하고, 지방 내의 어려운 교회도 도울 수 있는 든든한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7년간 필리핀에 거주하며 선교를 해 오고 있지만, 한 가문에서 30여 년을 꾸준히 해외선교를 지속해 온 가문은 매우 드물고 귀한 일입니다. 선교사로서 이런 훌륭한 가문을 저에게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선교회 회장으로 선교회를 이끌어주신 황규완 장로님과 황윤수 장로 기념선교회를 설립하셔서 오늘이 있게 해주신 故 황권식 장로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후원을 보내주신 영등포중앙감리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필리핀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박 윤 희 집사
(제17여성, 대우2숙)

이번 부흥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이 참 매력적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조상들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행복인지요. 아마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제목이자 바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분명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눈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과 환경 앞에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마음만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나는 나대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에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을 지키시나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에 어둠만 가득한 곳에도 하나님이 계신가요?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느라 너무 바쁘신 건 아니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



수많은 질문들을 뒤로하고 부흥회를 통해 몇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이 생기면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과 감사가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폭풍은 그대로 일지라도 그 폭풍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여 평안하고 잔잔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폭풍이 아닙니다. 그 폭풍을 능히 잔잔케 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에는 답답함과 괴로움뿐이었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는 실패가 아니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한 상황까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1)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지만, 그 부족함에 집중하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신 아빠 하나님과 함께하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뒤로하고 예수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시고 갈 길을 가르치시며 지켜보며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독교
이단
시리즈

신천지, 구원파

일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던 바울은 이단 문제에 관해 언제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였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 1:6-7)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이 변질될 수 있음을, 그리고 변질된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기독교 이단의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가 마주한 위기이자 현실이었던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인 ‘신천지’와 ‘구원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를 삶을 세울 수 있기를,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멀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Q1

신천지와 구원파는 대표적이고 유명한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들의 주요 가르침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신천지

신천지가 말하는 성경은 비유와 상징의 말씀이다. 이들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비유로 기록됐다. 이들은 “성령으로 온 지상 사명자로부터 듣고, 보고, 믿고,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성령으로 온 지상 사명자’는 이만희씨를 지칭한다. 또 예수님은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며 빛이 없는 밤에 인자인 한 육체의 사명자에게 영으로 임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만희씨는 자신이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보혜사 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만희씨는 신천지 본부(과천)에서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시작된다고 주장하며 그릇된 해석법에 따라 인 맞은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새 하늘 새 땅이 과천에서 시작되며 신천지 신도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다.

● 구원파

구원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정통 교회와 달리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 자신들만이 깨달은 진리를 전하고 있어 기성 교단으로부터 ‘이단’ 혹은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결의되었다. 구원파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며 한 번 구원의 확신을 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구원받은 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또 이들은 죄가 있으면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다고 말해 기성 교회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Q2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신천지와 구원파의 포교 방법에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포교를 하고 있나요?

● 신천지

신천지는 기성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포교하는 것이 특징이다. 열심 있는 성도들을 찾아 좋은 관계를 맺어 신뢰를 쌓은 후 성경공부를 권면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성경공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선교사를 소개시켜 주겠다.”라며 접근해 정기적인 성경공부, 기도모임을 유도하고, 더 깊은 말씀을 배울 수 있다며 일정한 장소로 인도해 여러 사람과 함께 강의를 듣도록 한다면 100% 신천지다.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나 주로 하는 말을 알고 있을 필요도 있다. 씨, 열매, 양식, 지팡이 등의 단어는 ‘말씀’, 나무, 눈 등은 ‘사람’, 고기는 ‘성도’를 의미한다며 많은 단어를 비유로 풀이한다. 이러한 내용을 가르친다면 신천지라고 보면 된다. 또한 신천지는 대학 내에서 동아리를 통해 교묘하게 포교한다. 자신이 신천지임을 속이고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 구원파

구원파는 포교를 위해 영성수양회, 전도집회 등 대형 성경집회를 중심으로 교리를 전하기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청년들과 해외 현지인들을 겨냥한 월드캠프, 글로벌캠프, 해외봉사단 등 종교색을 감춘 포교활동을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옥수씨 성경세미나와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IYF 월드문화캠프와 국제마인드교육원은 구원파의 대표적인 행사명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지만 구원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기독교 구원관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구원에 대해 정확히 알고만 있어도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지속적인 성경공부와 교리공부를 통해 구원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위 내용은 한국교회 이단 대처를 위해 애쓰고 있는 ‘현대종교 편집국’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기도

영등포구 영중로 163. 현재의 위치에 성전이 건축된 지 어느덧 45년이 흘러 노후 된 시설의 재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중반 ‘교회 리모델링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들은 그 무엇보다 기도가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고 있기에, 기도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중소식지에서 위원들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위원장 황현중 정로

찬란했던 역사와 전통을 잇는 영등포중앙교회의 유구한 세월 속에서 교회의 낡은 곳을 보수하고 새 시대를 예비하시기 위해 성전을 새로이 리모델링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질곡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드리고자 우리의 정성과 헌신과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서로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하여 교회 부흥을 위한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동으로 체험하며 차세대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케 하시옵소서.

한 사람도 인색함이나 구경꾼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구석구석 손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헌신의 자국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기도와 간구로 오직 하나님의 영을 잃지 않고 오직 예수로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 즈른 해를 기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성범 정로

능력의 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하며 지역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이기주의에 함몰되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며 교제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지금 당장의 불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50년 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100주년, 150주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등포중앙교회를 통해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복을 더하사 믿음이 깊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대권 장로

주님, 먼저 새로운 40여 년을 준비하는 교회 리모델링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속되는 코로나와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이때에, 교회 구성원 모두의 걱정과 기대를 공감하고 있기에 기도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 구성원의 기대가 있게 하옵소서. 모두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게 하옵시고, 특히, 미래세대의 기대로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이웃 사회의 바람을 기억하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사회에 빛과 소금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사로운 감정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어려움이 있어도 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등포중앙교회의 좋은 전통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규현 장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전 리모델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전 재건을 통해 영등포중앙교회의 하나 된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름답게 완성된 성전으로 인하여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새로워진 성전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을 기점으로 영등포중앙교회의 부흥과 발전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재열 권사

우리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 다가올 교회 리모델링을 통하여 이 성전을 단기적으로 10년, 장기적으로 30년 사용을 고려하여, 그림은 크게 그리고, 성도들의 공감을 얻어, 실행은 작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계획을 세우며, 실행하면서 성도들과 협의를 해나갈 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우리에게 한마음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삶

나는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 답을 찾다



차인숙 권사
(제12여성, 대우2속)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줌(ZOOM)에서 진행되는 경건 프로그램 ‘성도의 삶’을 통해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나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강의 영상과 교재, 그리고 줌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토론회 수업은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저에게 이를 행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교재명 ‘성도의 참모습을 찾아가는 여행 : 성도의 삶’처럼 저는 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은혜를 바탕으로 성도의 참모습을 찾아가는 여행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루하루 꾸준히 걸어나가길 소망합니다. 9강 ‘성령’ 편에서 접한 요한복음 14:16~17 말씀은 수업 후에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예수님께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4:16~17]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도의 삶’ 경건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성도의 삶에 대한 매뉴얼>과도 같습니다. 교육 내용은 총 13강이며 1)죄란 무엇인가? 2)회개란 무엇인가? 3)신앙이란 무엇인가? 4)거듭남이란 무엇인가? 5)구원이란 무엇인가? 6)그리스도인의 생활, 7)하나님, 8)예수 그리스도, 9)성령, 10)교회, 11)그리스도인의 성숙, 12)헌금, 그리고 13)헌신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고생 시절의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여성 성도님들과의 만남, 그리고 생각과 경험의 공유, 특히 일상 속에서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잘하고 있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그 실천방안을 다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 수업에서 만난 강경옥, 김경자, 김영주, 백연자, 유현주, 이연수, 허인선, 현정숙 자매님들과 주 안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나누기를 소원하며 진리를 탐구하고 깨닫게 인도해 주신 최태수 담임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큐티 모임

큐티는 ‘Quiet Time(조용한 시간)’이 아니었다



박 은 주 집사
(제17여성, 서교2속)

몇 년 전, 친정엄마께서 내게 ‘그룹카톡창’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난다. “함께 기도하는 친구 모임이 있거든. 여기에 손주 아픈 것 낮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부탁했더니, 이것 좀 봐봐. ‘00아, 기도 함께~’ ‘00아, 오늘도 네 생각하며 기도했다!’...” 불안한 마음이 안도와 감사로 바뀌고 있는 엄마를 곁에서 보면서, 울컥 나도 기도 부탁할 수 있고 기도해줄 수 있는, 친밀한 공동체 안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합류하게 된 공동체 모임이 이 ‘큐티 모임’이다.

‘Q.T.(quiet time)’ 그 의미 자체가 혼자서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도 처음엔 머릿속으로 그렇게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있어서 큐티란 내가 오늘 아침에 만난 하나님을 기도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또한 다른 이들도 오늘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는 그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하루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다. 사실 나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며 지내다가도 바빠지는 시기가 찾아오면 아침에 성경책을 덜 집어 들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큐티가 느슨해지고... 그런데 모임 안에 있으니, 묵상 나눔이 뜸해지면 서로 궁금해한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면서 큐티도 얼른 다시 바로 서게 된다.

그래서 나는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실 때, 나 혼자 하나님과 이랬다 저랬다 관계를 맺으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큐티 시간이 행복한 동시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떠오르면 나도 더욱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큐티 시간이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로 채워진다면 하나님께서 큐티 시간에 더욱 가까이 와서 내 귀에 속삭이신다는 것을.

큐티 습관을 들이기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만나기 위해 발을 들여놓은 것이, 이제는 아침에 큐티를 안 하면 어색할 만큼 내 삶에 자리 잡게 되었고, 함께 큐티하는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니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이 차오른다. 너무 사랑하고 고마워서, 어느 날 인생의 힘들음을 맞닥뜨려서 “오늘 아침 숨이 안 쉬어졌어요” 올리면 “기도하고 있어요” 올라오는 카톡 말풍선들 보며 눈물이 뚝뚝 떨어진 날도 있었다. 민수기나 요한계시록처럼 묵상이 어려운 성경 본문일 때는 “응 뭐라시는 걸까요?” 이렇게 큐티를 나눈 적도 있다. 그렇지만 정말 매일 한 줄이라도 쓰고 한 줄이라도 나누다 보니 동행이라는 걸 하고 있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과.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며 씨름하여도 아침햇살에 마음이 캄캄하다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하는 때인 것 같다. 그래서 큐티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 아니라 ‘Love Time (사랑의 시간)’이다.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하면 뭔가 자주 막히지만, 기도 시간에 사랑으로 기도해줄 수 있는 이들이 있다 보니 눈을 뜨고 현실로 가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곁에 계신다.

구약 이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



이 은 우 집사
(제17여선, 영중2속)

처음부터 구약 성경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토요일에 할 수 있는 성경공부 수업이 딱 하나였고 남편이 먼저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다. 사실 구약은 잘 안 읽게 되는 성경이기도 했고, 미지의 세계 같은 존재였기에 들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구약은 구전으로 전승되어 내려오던 이야기를 그 시대에 국가적인 상황 등 필요에 의해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인쇄기술도 없던 당시의 제사장들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수기로 작성하여 말씀을 기록하였고, 복사본도 만들었는데 후에 복사본과 원본이 완벽히 들어맞을 정도였다니 말씀을 후세에 완벽히 보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었다. 구약이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니, 지금 내 손에 있는 성경책, 그 안에 있는 구약이 새롭게 보였다.

구약은 딱딱한 걸모습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였다.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언약을 주셨으나 인간은 배반하였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 그다음 사랑의 이야기를 이어가신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가인, 바벨탑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악이 만연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나면서 롯을 통해서 또 언약을 끊지 않으시고 희망을 이어가신다. 솔로몬 시대는 부유했음에도 남과 북을 분열시켰고 그때부터 분열은 계속된다. 지도를 통해서 분열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강의 때 여러 지도들을 보여주셨는데 성경책의 한 장식물로만 여겨졌던 지도가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은 알 수 있었다. 또 목사님의 강의 때 등장하는 명화 같은 그림들은 그 시대 이야기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게다가 직접 만드셨다는 연표까지 보여주셨는데 이것들은 소중한 자료로 보관하면서 구약을 읽게 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성경공부를 통해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어디서든 듣기 쉽지 않은 강의인데 이런 강의를 듣게 되어 좋았다. 우리 교회 성도라서 누릴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다. ‘어려운 구약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 김민기 목사님께서 많이 연구하신 것 같았다. 목사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100을 던져주셨다면 나는 10도 받아먹지 못한 것 같다. 바쁘다는 핑계로 숙제도 칸만 채우는 데만 급급하여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다. 죄송합니다.

같이 공부한 차인숙 권사님, 이지현 집사님께서 항상 일찍 오셔서 자리도 정돈하시고 열심히 강의를 들으시는 모습이 내게 도전이 되었다. 이제 너무 먼 당신 같은 존재였던 구약 성경이 이전과는 조금은 달리 보인다. 앞으로 구약을 포함해 성경 일독을 해봐야겠다는 용기도 들면서 말이다.

성경은 공부가 필요해요



이 지 현c 집사
(제12여선, 문래속)

신앙 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
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책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영등포중앙교회에 출석한지 얼마 안 되어, 가을에 시작하는 양육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김성중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옥중서신 이해’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니, 말
씀 한 구절씩 원어적 본뜻을 풀어주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소개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당시 환경과 배경에 맞게 구절을 설명해 주셔서 이해
하기가 편했습니다. 오랜만에 고등학생 때처럼 빨간펜으로 성경에 열심히 적으며 공부할 수 있어
서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총인원이 6명이었기에, 서로 동글게 앉아 눈과 눈을 마주하며 공부할 때, 성경 한 절 한 절의 내
용뿐 아니라 그간 궁금했던 신앙적 고민도 허심탄화하게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편지’라고 하는데, 그 편지를 잘 이해하기 위한 ‘성경풀이
공부’가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등포중앙교회에서 이러한 성경풀이 시간이 자
주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이런 성경풀이 강해 시간이 있다면 최
대한 참석하여 공부하고자 하니 성도님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김성중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동기생분들에게도 격려
의 인사를 보냅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 웨슬리와 감리교 교리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자



기 남 숙 권사
(제14여선, 대우2속)

처음 ‘존 웨슬리와 감리교 교리’라는 양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았을 때는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만 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들키게 될 것 같아 두렵고 창피했지만, 이내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결정하였다. 존 웨슬리의 옥스퍼드 생활에 관해 들으면서, 나의 경건을 위해 신앙 필사와 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약속하였다.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쓰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구분하기 시작하였더니 이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고,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깃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특별히 함께 양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작은 속회’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실 영등포중앙교회를 출석하고 섬겨온 지 어느덧 14년이나 되었음에도, 이는 사람이라곤 14부 여선교회 회원들과 대우 2속 속회 식구가 전부라고 해도 될 만큼 많은 사람이 지내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프로그램 속에서 ‘작은 속회’를 만들어 신앙과 삶에 대해 깊이 나누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지를 듣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반성도 하게 되었고,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특별히 함께했던 젊은 집사님들을 보며 지난날 아이들이 어리다는 핑계로 봉사와는 거리를 두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양육프로그램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작년 추수감사절 제단 쌓는 봉사에 손길이 부족하여 힘들었던 기억이 났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하면 어떨지 제안을 하였는데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주어 소소한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했다. 더 나아가 ‘목요일 노숙자 도시락 봉사’에 동참하면 좋겠다는 권사님의 권유를 받고는, 양육프로그램 멤버 중 가능한 이들과 함께 새로운 팀을 꾸리기도 하였다. 이들과 함께 도시락을 만들고,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힘들고 피곤하다는 마음보다는 봉사의 기쁨과 서로를 알아가는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

이번 양육프로그램을 통해 주님께서 맞게 해주신 귀한 ‘작은 속회’를 통해, 세상 모임 속에서 갖지 못했던 의와 화평과 기쁨의 순간을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 하나는 사랑일 것이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매일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마더 와이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박 현 정 집사
(제15여선, 영중1숙)

언젠가 남편의 지인이신 장로님께 새해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너무 행복하게 성경 필사를 하시던 그분께서 성경은 읽을 때마다, 필사할 때마다 더 깊은 깨달음을 준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살면서 한 번쯤은 성경을 통독해 봐야지,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필사를 해보아야지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이렇게 느닷없이 성경 공부 소모임에 참석하게 될 줄은 몰랐다. 나의 일상은 늘 너무나 바쁘고 틈이 없었으며, 게다가 난 늘 믿음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의심을 하는 반쪽짜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적거리고 빠져나가기 일쑤였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연락 주셔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자고 하셨을 때 다른 때와 다르게 덜컥 “네, 해보겠습니다”라는 말이 불쑥 나와 버렸다.

‘마더 와이즈’ 책을 받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으며 책 속의 지혜를 읽어가는 일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수요일마다 집에서, 혹은 회사에서, 어느 날은 스터디 카페에서, 조용한 곳을 찾아 시간을 쪼개며 말씀을 나누는 일이 버겁기도 했지만 내 안에 있던 나를 많이 생각할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들을 좀 더 깊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말씀 속에 삶의 지혜가 있는데, 난 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반성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더와이즈 ‘지혜’ 편을 통해 엄마로, 아내로, 또 나라를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삶을 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자유’ 편을 통해서는 사회 속에서의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회복’ 편을 통해서는 인간으로 가졌던 아픔과 어려웠던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며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깝게 스며들었던 것 같다.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시는 집사님들과 생각을 나누다 보니 내 안에 너무 많은 못다 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퐁퐁 감추고 차마 발을 내딛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곁에서 나를 끌어주고 계셨고 이런 시간들을 계획하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가슴 뜨겁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언제나 내 문밖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참 신앙인이 될 날이 내게도 언젠가는 오겠지... 라는 희망을 스스로에게 볼 수 있던 귀한 시간이었다. 함께 해주셨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한 시간에 마음을 공유했던 집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강화의 역사와 믿음의 길 위에 서다’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강화대교를 건너 얼마 가지 않아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인천 강화군의 기독교적 역사를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화의 역사와 믿음의 길 위에 서다’라는 주제로 건축된 기념관은 연면적 1,877㎡, 지상 2층으로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 공동집회실과 어린이체험존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올해 초(2022년 3월 21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영중소식지에서는 강화군 최초의 기독교 전파 과정, 3·1운동으로 이어진 기도운동, 그리고 강화 기독교인의 삶과 다양한 문화유산이라는 세 가지 관람 포인트에 맞춰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강화 역사 속 복음 이야기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군’, 그 중심에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 때 몽고 침략, 조선시대 프랑스와의 병인양요, 미국과의 신미양요,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을 거치면서 아픔을 겪은 강화인들은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를 쉽게 허용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1893년 성령의 두 빛줄기 성공회와 감리교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성공회는 강화의 관문인 동쪽 갑곶이에 첫 선교사 워너를 통해 성니콜라스회당을 만들고 고아들을 모아 선교를 시작했고, 감리교는 강화의 서쪽 바닷가에서 선상세례를 베풀 것으로 선교가 시작됩니다.

♣ 이야기 하나... 강화 선교의 시작 ‘선상세례’

강화 초기 선교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선상세례’ 이야기입니다. 강화 시루미 마을 출신 이승환은 인천 제물포에서 주막집을 열어 술을 팔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술 취하지 말라’는 가르침과 더불어 술장사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깨닫고 술장사를 접게 됩니다. 이후 복음을 받아들인 그는 강화로 돌아와 자신의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존슨(George Heber Jones, 조원시) 선교사에게 세례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당시 강화는 외국인 입성을 막고 있었기에 밤중에 어머니를 업고 바닷가로 나가 배 위에서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강화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이후 강화 최초의 감리교회인 교향교회를 시작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 선상세례



▲ 교향교회 (현 강화교산교회)

♣ 이야기 들... 마리산 기도운동

강화도에 기독교 씨앗이 뿌려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강화도만의 기도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마리산에 올라 새벽 노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마리산 부흥회’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1915년에는 정식 정기 부흥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1차 집회가



▲ 마리산 기도운동



장봉도에서 이루어졌고 2차 집회는 화도면 내리에서 정윤화 권사를 중심으로 마리산에 올라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3차 집회는 장봉도의 웅암과 진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차 집회 기도가 끝이 나자 병에 걸렸던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었고 많은 이들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마리산 부흥회는 더욱 성장하게 되고 강화 기독교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마리산 부흥회는 1960년대 초까지 이어져 내려왔고, 오늘날까지 신앙과 복음의 성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리산 기도운동 당시 남자들은 돌 하나를 지게에 지고 여자들은 머리에 이며 산에 올라 허물어진 제단 위에 돌을 하나씩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마리산 기도운동은 당시의 민족적으로, 토속적으로 의미가 깊은 마리산에서 일어난 기독교 운동으로 신학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그 의미가 깊습니다. 이는 단순히 강화도 기독교가 신앙과 종교를 넘어 민족성을 일깨우고 자극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산 기도운동이 3·1 운동으로 이어지다

마리산 부흥회는 강화도의 기독교에 이바지한 것뿐만 아니라 민족운동,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리산 부흥회가 시작된 1915년은 일제 강점기에 저항하는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되자 삼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강화도에도 항일정신과 독립정신이 전해졌습니다. 강화도는 강화 만세운동이 따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919년 3월 18일 읍내 장터에도 1만여 명이 모여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때 만세를 주도했던 흥천 학교의 교장 전병규, 유봉진, 황유부, 조종렬 등은 모두 부흥회를 이끌고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강화군의 민족운동에 투신하여 일생



▲ 3·1 만세운동에 사용한 태극기



▲ 강화의 3·1 운동과 민족운동

을 바쳤습니다. 마리산 부흥회의 깊은 신앙과 활동이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강화기독교의 역사적 유물

기념관 로비에는 일제 강점기 수탈을 피해 지켜 낸 100년의 슬픈 역사를 가진 기억의 종과 함께 1899년 간호선교사로 사역한 로다(Rhoda G. Robinson) 선교사의 묘비를 볼 수 있습니다.



▲ 기억의 종



▲ 로다선교사 묘비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성공회 예배 때 사용하던 오르간과 선교 초기 제작된 홍색 제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화부흥회의 규칙, 규약 등을 기록한 규범집인 강화부흥회 기록물과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제작된 주일성경보통공과와 같은 역사적 기록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성공회 예배 오르간&홍색 제의



▲ 주일성경보통공과 및 기록문

2층 상설전시장에서는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부터 110년 된 성서, 1896년 내한한 휘트모어 선교사가 사용하던 가방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1960년대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예배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소망만큼은 풍족했음을 보여주는 풍금과 라디오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 휘트모어 선교사 가방



▲ 풍금과 라디오

강화기독교 기념관 건립을 통해 함께 일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강화의 교회와 성도들은, 강화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강화 기독교사의 기념비적인 의식을 갖기 시작한 이후부터 기념관 건립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재원확보의 어려움 속에서 2020년까지 중단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단될 것 같았던 사업은 강화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염원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현직 목사들을 움직이게 하였고, 강화도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음을 강화 교수가 인지하도록 하심으로써 강화군의 적극적인 도움(강화읍 용정리 일대에 군비 100%, 7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받아 2년여 만에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중단될 것 같았던 사업을 단숨에 일으키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건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살아있는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오늘날도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 가고 보여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외부전경

추천합니다.

기념관을 둘러보며 교향교회, 니콜라회당으로 시작된 강화기독교의 전파 과정, 초기 선교사와 강화 기독교인의 삶, 기독교 정신이 만든 만인이 평등한 교육·문화·의료체계 구축, 강화 기독교인의 3.1운동 및 항일운동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성재 이동휘, 송암 박두성, 유봉진 등 기독교 인물들을 통해 강화기독교의 근대사적 가치와 오늘날의 시대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파해준 선교사님들의 노력에 감사했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은 남녀 상관없이 양반과 천민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라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기에 그 당시 어렵고 힘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 '복음'은 삶의 위안과 큰 힘을 주었을 것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1959년 가난했던 시절, 복음을 듣기 위해 청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라디오(그 당시 쌀 160kg을 살 수 있는 비싼 물건)를 구입한 일을 보며 그 시절 복음에 대한 열정 앞에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한편으로는 도전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의 방문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하며, 성도님들께 추천합니다.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관람시간 10:00 ~ 18:00

휴 관 일 (월요일 및 휴관)

주 소 1면천로에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리 154번길 12-1

문 역 14032 930-7149-7150

우편번호 1농림 301-0305-7024-51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강화)

이용요금

관람객	일반	단체(20명 이상)
어른(19~44세)	2,000원	1,500원
어린이 및 청소년(5~18세)	1,500원	1,000원
65세 이상 및 노인	무료	무료

길은 **광야**와 **어둠**을 통해 이어지고

* 본 글은 대림절-성탄절 목상집 『별이 빛난다』(자카리아스 하이세스, 가톨릭 출판사) '12월 25일' 편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일부 가톨릭 용어는 편집 과정에서 수정되었음을 밝힙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날은 많은 이들에게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축제일입니다. 대림 시기 동안 사람들은 성탄을 준비합니다. 조부모님, 부모님, 친척들, 그리고 친척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모이기 위해 종종 먼 여행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집주인은 이미 11월부터 성탄 손님들을 어떻게 즐겁게 대접할까, 무엇을 챙겨 줘야 하나, 그리고 그때까지 무슨 준비를 끝내 놓아야 하나 생각합니다. 무릇 완벽한 축제란, 모두가 기분 좋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마시며 모두의 만족 속에 끝나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집주인도 포함해서요. 광고, 미디어, 신문, 텔레비전 방송 등이 축제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합니다. 거의 모든 신문에서 우리는 완벽한 성탄 만찬을 위한 메뉴를, 완벽한 성탄 장식을, 완벽한 성탄 선물에 대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자주 현혹되는 것은, 이 날이 마치 완벽한 조화를 뿜내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커다란 식탁 주위에 모여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고 손을 맞는 것 말이지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음악 공연이나 영화들도 성탄에는 모든 게 기쁘고 즐겁고 반짝반짝 빛난다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이런 성탄 축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는 것과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은 이 하루 동안은 가만히 정지해 있으며, 마치 이제 모든 것이 좋고 건강하며, 모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듯이 그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역시 그렇지는 않았지요. 예수님은 결코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라, 전쟁과 굶주림과 가뭄과 여러 자연재해로 고통받던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았고, 성탄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억압

과 불의와 비참함에 시달리고 생명을 위협받아 도망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의 구유가 처한 상황이야말로 조화와 목가적인 풍경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결코 좋은 와인을 마시며 감상하는 디너쇼 같은 것은 없었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구유에서 낳으셨는데, 로마군에 의해 점령당하고 가혹한 통치에 신음하던 이 도시의 어떤 여관에서도 방 하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성탄절의 하모니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길은 ‘광야와 어둠’을 거쳐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예상치 못하게 성탄절에 이 성경 말씀이 봉독되는 것이 놀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날에도 그 당시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인간의 길은 어둠과 밤을 통하여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도 성탄의 복음은 저를 숨죽이게 합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광야와 어둠을 뚫고 태어나셨습니다. 어둠의 한복판에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암흑과도 같고 비참함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말이지요. 오늘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관찰자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꾸려가고 망하게 하는지 한껏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가운데서 둘러보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육이 되셨습니다. 뼈와 살이 있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로써 그분은 조건 없이 인간 편에 서시고 ‘광야와 암흑’을 인간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보여 주신 삶은 그 모든 어둠 속에서 빛과 희망과 확신은 증언합니다. 곧 죽음이 지배하는 어두운 순간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고, 이는 부활의 시간으로 변모될 것이며, 이로써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고 ‘광야와 암흑’이 새로운 아침을 끝 끝내 가로막지 못한다는 희망의 표징이 도래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생명의 파괴될 수 없는 힘을 아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체험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광야와 암흑’만을, 혹은 모든 난관과 불행과 죽음과 어둠만을 체험하신 것이 아니라, 끝없는 삶의 기쁨을 만끽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탄생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을 것이었으며, 후에는 제자들의 사랑을 체험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지니는 것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체험하실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을 감지하시고, 보고, 냄새 맡고, 느끼실 것이었습니다. 미디어가 현혹하듯 성탄절을 ‘광야와 암흑’은 다 사라진 만사형통한 모습으로 그리는 것은 그 원래의 의미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탄절이 기쁨과 광채와 행복이 사라진 채로 생각하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밝음은 어둠을 필요로 하니, 이는 이로써 밝음을 더욱 밝음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탄절에 걷는 우리의 길을 동반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함께 즐거웠어요!



올해 유치부(이하 영중새싹)는 친교와 공동체에 중점을 두고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로 2년 반 정도 긴 시간 동안 친구들과의 만남을 잘 가질 수가 없었으나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되고 여러 친교 프로그램을 통해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들의 모습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연령별 모임)

같은 나이 친구들끼리 모여 선생님들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회복됐지만 친구 간의 교제는 다소 어색해 보여, 가장 먼저 마련한 모임입니다. 유치부 예배 후 같이 점심을 먹으며 얘기고 자기소개와 퀴즈를 통해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게임을 통해 친구와 협동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6세와 7세는 2번, 5세는 1번 진행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니 2년 반이라는 공백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웃으며 예배하는 사랑의 예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JOY JOY

토요일에 함께 모여 즐겁게 뛰노는 JOY JOY 프로그램은 9월과 10월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3번의 모임을 가지면서 영중새싹 친구들이 이 시간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지 노는 시간일 수 있지만 아이들은 이 날을 기다리고 있고 교사에게도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친구들과 모여 노는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친해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운 영중새싹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달란트잔치

9월 한 달 동안 예배참석, 예배참여도, 활동참여도에 따라 아이들이 각자 포도송이를 채우며 달란트를 모았습니다. 다 채운 포도송이만큼 달란트를 받아 예쁜 인형, 재밌는 장난감과 맛있는 간식들을 사며 즐거운 달란트잔치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초청예배

창립 86주년을 맞이하여 영중새싹에서는 친구초청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은 영중유치원에서 10명의 새신자와 1명의 장결자가 온 아주 기쁜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 친구들이 유치부 예배에 많이 전도되어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아이들은 사과, 배, 귤, 파인애플 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두 손 무겁게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과일로 제단을 꾸미며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것뿐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영중새싹 아이들과 가정, 교사들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양육반

영중새싹은 6~7세를 대상으로 11월 12일부터 26일까지 토요일마다 '하나 양육반(하나님과 나)'을 진행했습니다. 줌(zoom)에서 모여 하나님, 사람, 교회라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면서 기본적인 교리들을 배웠습니다. 5명의 친구들이 잘 집중하여 양육반을 마쳤고 마지막 날에는 간식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믿으며,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는 자녀가 되길 늘 바라고 기도합니다.



02

유년부

유년부 심방프로그램

찾아가는 심방, '찾아간데이'

2022년을 맞이하면서 유년부에서는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심방 프로그램 '찾아간데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역자와 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과 미리 약속을 잡고, 학교 앞이나 놀이터, 가정으로 방문하여 맛있는 간식과 함께 유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회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시작된 '찾아간데이'는 자연스럽게 아이들 간의 멤버십 강화와 친밀감 형성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어색함이 감돌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수업이 모두 끝나고 도란도란 나오는 친구들을 기다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학교 앞에서 만났을 때에는 서로를 어색해하던 친구들이 나중에는 "오늘 언제까지 놀 수 있어?"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직 OO 친구가 나오지 않았어요"라고 말하며 서로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찾아간데이'를 통해 맺게 된 귀한 열매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랜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현장으로 나와 예배하기가 부끄럽고 어색하다고 말하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학교 앞에서 친구들을 만나 얼굴을 보고 재미있게 노는 시간을 갖다 보니 다시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이 교회에 방문하여 정착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평소 교회에 관심이 있었지만 차마 먼저 찾아오지 못했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역자가 가정을 방문한 경우 심방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학부모님과 자녀에 관해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교회 생활과 영적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나누기도 하고, 자녀를 위한 기도제목을 나누기도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영적 성장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모두 오랜 시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역자와 교사들만의 헌신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찾아와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기독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빛 전도사 편지

'유년부 친구들에게'

유년부 친구들 안녕?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오세빛 전도사님이야. 요즘 전도사님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야. 친구들이 손을 모으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친구들을 얼마나 예뻐하실까 생각하게 돼. 우리가 함께 보낸 지난 한 달의 시간 동안 친구들의 모습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웠어. 예수님께서도 친구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실까? 분명 그러실 거야. 앞으로도 전도사님과 함께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어보자! 친구들아 잘 부탁해!

친구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오세빛 전도사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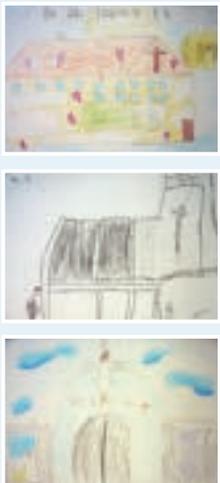
교회를 말하다



100년 후 우리 교회 그리기

초등부 어린이들은 10월 9일과 16일, 2주 동안 '100년 후 우리 교회 모습'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의 생각과 상상력은 끝이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외계인과 함께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100년 후에는 교회 반주와 설교를 AI 기능을 탑재한 로봇이 할 것이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100년 전이 더 좋았는데...'라는 생각을 하시겠다는 상상을 한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지금 교회의 모습이 100년 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교회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예쁘게 그려 넣었고, 다른 아이는 로봇과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며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하나둘씩 천천히 감상하다 보니 아이들의 머릿속에 한가지 생각이 공유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꾸준한 교회'였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에는 대부분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아이의 그림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그림 안쪽에 작게 "100년이 지나도 교회의 모습은 그대로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교인들의 믿음도 그대로일 것이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하시는 꾸준한 교회'였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영등포중앙교회가 주님 안에서 '꾸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초청예배

10월 23일은 우리 교회 창립 86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2주 동안 교회의 의미를 묵상하며 친구들을 전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5명의 새 친구가 초등부 예배에 출석하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아이들과 화이트보드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쉽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부 활동으로 팀을 나누어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재밌게 게임을 한 후에는 함께 간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 출석한 5명의 아이가 초등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잔치

11월 20일, 초등부는 달란트 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달란트'가 '나를 위한 재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모든 일'이라는 것을 배우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란트 잔치 후에는 미니 버거와 음료수를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10월과 11월은 초등부에게 '교회란 무엇인가'를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글과 그림으로 이 질문에 답하며 교회의 의미를 배워갔습니다. 많은 아이가 교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전도라는 실천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주일에 운영되는 세상의 공동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린이가 세상 모임에 빠져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행 속에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리어 세상의 빛이 되어 많은 친구를 교회로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중 초등부 어린이들의 삶에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04

청소년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땅따먹기 프로젝트

청소년부(이하 영중등대)는 9월에서 11월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코스를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받은 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까지 성경에 나온 지역들을 마음 가운데 함께 거닐며 여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전도여행의 수많은 지역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깨닫고 느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땅따먹기 프로젝트'라는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땅따먹기 프로젝트'는, 매주 주일 혹은 주중에 작은 미션이 주어지고, 그 미션을 성공한 사람에게 스티커를 지급하는 경건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예배당 뒤에 준비된 대형 지도에서 그날 말씀에서 배운 지역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은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과 미션을 통해 재미를 느끼고, 나아가 전도여행 지역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며 한 번 더 말씀을 복습하고 익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살펴보며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땅따먹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영중등대 친구들이 사도 바울처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초청예배

영중등대는 지난 11월 20일 주일예배를 통해 세 달간의 전도여행의 마지막 장이자, 땅따먹기 프





로젝트의 마지막 장을 친구초청예배로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땅따먹기 프로젝트를 통해 깨달은 복음의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학교, 학원, 가정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보고자 했습니다.

매일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학업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들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둘러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해보는 귀한 시간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성향상 맞지 않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의 성향이나 가치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마음으로 많은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힘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오겠다고 결단한 친구들도 있었고,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친구들도 있었으며, 우리 교회가 사이비가 아닌 정통한 교단인지 묻고 관심을 갖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교회로 전도해 오려고 시도하다가 친구와 사이가 멀어진 슬픈 일도 있었고, 또 교회하기를 거부하는 친구들도 있었으며, 교회를 향한 욕들을 서슴없이 내뿜는 친구들, 그리고 전도용품만 받고 입을 닦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많은 새 친구들이 교회로 와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시간상 이번 행사에는 못가지만, 다음 주 혹은 그 다음번에 교회에 나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연례행사를 넘어서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기쁨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과 처음으로 영등포중앙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춘기를 겪고 있던 시기였기에, 주일 아침에는 항상 전쟁 같았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 가기 싫은 저는 주일 아침이 되면 핑계를 찾기 바빴고, 어머니와 협상을 시도하곤 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정신을 차려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곤 했습니다.



김 현 동 청년
(젊은이교회 회장)

20살 청년이 되어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속장님들을 통해 신앙생활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젊은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 5년 전부터 청년회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저를 신뢰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저의 모습을 수용해주신 교회 공동체가 있어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제가 부족한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신승민 목사님의 격려와 속장님들께서 응원해주시고 포용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감사의 표현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저는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경험하게 되었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방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다음 세대인 저희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 잘 계승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그리고 부모님과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부족한 저를 포용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선택하다가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와 같이, 힘들고 지친 시간 속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청년들을 기다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청년회장이라는 의미 있었던 섬김의 시간을 마치고, 원래의 청년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라는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더 많이 순종하고 섬기며 주님의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저의 모습이 되기를, 또 이 글을 읽고 계신 성도님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영 중 계 시 판

YEONGDEUNGPO CENTRAL METHODIST CHURCH



주일 점심 애찬

코로나19로 멈추었던 점심 애찬(위원장 : 최형숙 장로)이 9월 25일(주일)부터 재개되었다. 주일 3부 예배 후 지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란다. 또한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 드린다.



야외 연합 속회

10월 14일(금), 강화에서 야외 연합 속회가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을 방문하여 선교의 역사를 알아보았고, 오후에는 웨슬리수도원에서 예배드린 후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다. 속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깊은 교제와 나눔을 통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장로 부부 수련회

9월 30일(금)~10월 1일(토), 1박 2일 동안 웨슬리 수도원에서 장로 부부 수련회가 진행되었다. 시무장로 부부가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늘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하시는 장로님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장년부 수련회

청장년부 수련회가 10월 9일(주일)~10일(월), 1박 2일 동안 웨슬리 수도원에서 진행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랜 시간 대면모임이 쉽지 않았는데 수련회를 통해 예배와 교제의 장이 새롭게 회복하게 되었다. 청장년부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창립 86주년 기념행사

◆ 추억의 사진 전시회

‘영등포중앙교회의 태동(1936~1964년)’ 부터 ‘100주년을 바라보며(2018~2022년)’ 까지 총 5개의 Chapter로 구성된 추억의 사진을 전시하였다.



◆ 감사꽃 봉헌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정성껏 키운 국화 화분을 봉헌하여 성전 입구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 심령부흥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라는 주제로 최태수 담임목사께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다. 10월 23일(주일) 오후 부터 26일(수)까지 일곱번 진행된 집회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다. 특별히 부흥회 마지막 날 저녁헌금 636만원은 케냐 어린이 급식비로 전달하며 사랑을 나누었다.



추수감사주일, 기관 나눔

11월 6일(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 불어 강단을 장식했던 곡식과 과일들은 자선단체와 선교기관 및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나누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는 영등포중앙교회가 되길 소망한다.



새가족 환영회

지난 11월 13일(주일) 오후 1시, 사회교육관 6층 엠부카페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진행하였다.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들이 모여 새가족을 환영하며 다과를 나누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



유년부 전도사 이임·부임

11월 27일(주일)에는 지난 5년간 유년부를 위해 헌신해 주신 김요한 전도사(사진 우측)께서 이임하시고, 후임으로 오세빛 전도사께서 부임하셨다. 두 분의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소식

YEONGDEUNGPO CENTRAL METHODIST CHURCH



이사

정춘화 권사(도림속)	구로구 구로중앙로
배현근 성도	영등포구 양산로
김세웅 권사, 윤지영 집사(영중4속)	안양시 만안구
박종운, 지미선 권사(문래속)	서초구 방배로

감사

- ▶ 범사 감사로 애찬 섬김
정창영 권사(영중1속)
박정열, 한기숙 권사(중동속)
김세배, 선양금 권사(평화속)
최희천 장로, 김성희 권사(양평속)
진완용, 배용숙 권사(삼환속)
이범석, 이동연 권사(분당속)
조영재 장로, 김백화 권사(김포속)
배계수, 정혜자 권사(유원속)
- ▶ 어머님 장례 후 애찬 섬김
맹진구 장로, 김향진 권사(목동속)
박만기, 김지희 집사(래미안5속)
- ▶ 생일 감사로 애찬 섬김
홍천수 장로, 김용순 권사(반포속)
- ▶ 장로회 애찬 섬김

장례

맹진구 장로(목동속) 모친상 (김향진 권사 시모상)	9/21
이유순 권사(등촌속) 소천 (장은실 권사, 장은성 집사 모친상)	10/22
진완용 권사(삼환속) 모친상 (배용숙 권사 시모상)	10/25
김지희 집사(래미안5속) 모친상 (박만기 집사 장모상)	11/13
전광표 권사(중동속) 소천	12/1
오종석 집사(래미안3속) 모친상 (박미숙 권사 시모상)	12/15

출산

강소은, 최상호 성도 (강창원, 인미숙 권사 득손)	득녀 9/19
김교현 집사, 박재인 성도(영중5속)	득남 9/24
고병주 성도 (고원상, 이연수 권사 득손)	득녀 10/26
추창호, 손숙자 권사(대우1속)	득손 10/28
배현근 성도 (배병국, 이영희 권사 득손)	득녀 11/8

결혼

이민주, 문혜빈(젊은이교회 청년)	11/5
최선아(젊은이교회 청년)	11/26
양영진(젊은이교회 청년)	12/24

2023년 전교인 필독 독서운동

1분기 1 · 2 · 3월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타인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자기를 아끼며 강건하고 기쁘게 살기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펴도 어디를 읽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도 안 나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다. 우리가 죄의 길로 빠질 때 대개 그렇다.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방황하거나 자기 학대를 하기도 한다.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상처를 준다. 그러면 이것이 또 다른 상처로 다가온다. 원래 상처보다도 더 큰 수치감을 느끼게 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지만 사울은 어떠했는가? 자기가 판단하고 먼저 움직였다. 애를 많이 쓰고, 수고도 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다. 주변은 불안하고 우리는 그 두려움에 싸여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자기애의 욕구가 늘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나 항상 마음을 굳건히 하고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자.



성인 필독도서

가.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유은정 지음 / 규장

나. 독서 기간 : 2023년 1/4분기(1월 ~ 3월)

용서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화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라.

‘지금 화내는 이유가 정당한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는가? 누구라도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나?’ 그런데 묻고 생각할 여유도 없이 욕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그럴 때 자리를 피하라고 권한다. 3초 안에 그 자리를 피하라고

- 본문 중에서 -

※ 2023년 한 해 동안 ‘분기별 1권’ 필독도서를 함께 읽는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도서는 교회 내에서 별도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문고에 비치된 책을 대여하시거나 직접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영등포중앙교회

영중소식 2022 겨울

발행처 영등포중앙교회

발행인 최태수

편집인 조영주 신승민

편집위원

김성일 최웅기 김선정

김성희b 박선숙 권지선

제작 주심기획